

비노인층의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이 윤 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최근 노화(aging)연구에 핵심 주제인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서는 기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오류를 지적하며,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노인정책에서도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인인력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고령화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인의 정년을 연장시키고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OECD, 2005). 즉, 노인이 더 오래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기능의 장애 없이 건강하게 노후를 영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중·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중·고령자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작업능력이나 능률이 떨어진다, 체력문제로 힘든 작업이 곤란하다, 처우가 힘들다’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김정한, 2005),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고용으로 대표되는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 노인층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노인의 30.8%가 취업중이며, 미취업자 중 17.5%가 취업을 희망하며, 특히 도시지역은 20.3%, 남성노인의 경우 30.8%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이와같이 많은 노인들이 취업을 비롯한 활동을 희망하는 것에 반해 사회에서는 노인의 취업을 비롯한 적극적 사회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사회적 측면에서나 개인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낳을 것이며, 이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원영희, 2004). 김영숙(2002)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노인의 취업, 의료서비스의 혜택 등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낳을 수 있고, 노인과 함께 사는 일을 기피하게 할 것이며, 부정적인 인식이 증폭되면 노인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미혜(2003) 또한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나타나는 노인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됨을 지적하며 노인복지정책에서의 노인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노인층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인들이 내재화함으로써 노인 스스로 자신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거나 스스로의 내적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Jantz, R. K., Seefeldt, C., Galper, A. & Serock, K., 1977). 즉,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개개인의 자존감 저

하로 인한 적극적 사회참여를 저해하며,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 더 나아가 노인학대의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노인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인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적극적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와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과연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연구(조명희, 1974; 차용은, 1980; 윤진·조석미, 1982; 김미혜, 2003)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곽필선, 1989; 조성혜, 1990; 윤성혜, 1990; 옥은진, 1990; 이은미, 1999; 최춘혁, 1992; 신귀연, 1996; 서병숙·김수현, 1999; 이선자, 1989; 이시형 외, 1999; 조명희, 1987; 원영희, 2004; 김영숙, 2002)로 나뉘어져 있다. 노인이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최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노인문제의 부정적 인식과는 그 경향을 달리하고 있어 다소 의아한 결과이기도 하다.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의 연구결과가 많은 것에는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효문화의 영향이 반영되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기존 노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노인에 대한 인식, 태도, 고정관념, 편견 등의 유사 용어와 개념으로 이루어졌다¹⁾. 연구대상은 대학생 이하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아동과 청소년층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내용은 노인이미지의 상태와 노인이미지의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와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 노인이미지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노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분석에만 초점을 두어 노인의 신체·정서·경제 등의 측면을 구분하여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며, 연구대상에 있어서 연령집단이 다양하지 못하며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20세 이상의 비노인층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고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노인의 이미지는 노인의 건강, 정서적 특성, 지적 능력,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각 영역마다 연령층에 따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금룡(2004)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노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양육하는 청·중장년기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이들 자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녀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을 더한다. 따라서 이들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특성과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향후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질 것이 기대되어진다. 또한 노인에 대한 건강·정서적 특성·지적능력과 경제력의 영역을 구분하여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안 개발에 있어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아울러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조사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04)'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1)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존 연구검토에서는 이미지와 유사한 인식, 태도, 고정관념, 편견 등으로 사용된 전 연구를 함께 검토할 것임.

결과의 일반화를 피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 이미지 개념

노인의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태도, 인식, 고정관념, 편견 등으로 다양하다. 각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지(image)'란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映像) 또는 심상(心象),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이나 인상을 의미한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안다는 뜻이며, '태도'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거두는 모양새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정관념'은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이며,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한다(동아 새국어사전, 2006). 이들 중 이미지와 인식은 거의 유사하며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고정관념과 편견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또한 태도는 인식과 의식의 차원보다는 행동적인 차원의 용어로서 노인차별과 유사한 용어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노인이미지'가 사용된 연구는 김미혜(2003), 김미혜·원영희(1999), 김영숙(2002), 배현미(2003), 서병숙·김수현(1999) 등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사용한 연구는 김지형 외(2001), 윤성혜(1990), 이미정(1996), 이인수(2000), 임장순(1971) 등이다. 그 외에도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는 김윤정·정선아(2001), 김혜경(1997), 원영희 외(2002), 이선자(1989)외의 다수이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박경란·이영숙, 2001)과 노인편견(원영희, 2004), 노인의 표상(이병관 외, 2003)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용어의 긍정적, 부정적 성향을 포함하며,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으로 직접적인 접촉 외에도 간접적 접촉 등을 통해 얻어진 인상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동향

노인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는 미국에서는 1950년 경에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조명희(1974)의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태도분석'을 시작으로 198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이미지 또는 편견은 다음과 같다. 성공적 노화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인 Rowe & Kahn(1999)에서는 노화에 대한 6가지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은 아프고, 노인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으며, 노인의 생활습관은 고칠수 없으며, 성공적으로 늙는 것은 본인의 통제권 밖의 유전에 의한 것이다. 또한 정열이 매우 낮고,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McTavish(1971), Nuessel(1982)의 연구에서도 '노인은 일반적으로 피곤하며, 아프고,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느리고, 잘 잊어버리며, 새로운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잔소리가 많으며, 위축되어 있으며, 스스로 안됐다고 여기고, 활동에 잘 참가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으며, 불행하고 비생산적이며, 방어적이다'라고 나타났다. 김미혜

(2003)의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이미지 분석에서 부정적 이미지의 내용은 노인은 질병을 앓고 있으며, 초라하고 지저분한 외모를 가진 존재로, 과거 지향적이며 내향적, 폐쇄적, 권위적이고, 무서우며, 외롭고 우울한 성격을 지니며,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가족과 단절되어 혼자사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일할 곳이 없는 존재로 묘사되어진다. 하지만 노인이미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혼재되어있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연구(조명희, 1974; 차용은, 1981; 윤진·조석미, 1982; 김미혜, 2003)에 비해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 연구들(곽필선, 1989; 조성혜, 1990; 윤성혜, 1990; 옥은진, 1990; 이은미, 1990; 최춘혁, 1992; 신귀연, 1995; 서병숙·김수현, 1999; 이선자, 1989; 이시형 외, 1999; 조명희, 1987; 원영희, 2004; 김영숙, 2002)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노인이미지 관련 연구의 내용은 노인의 이미지의 수준과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 노인이미지 또는 세대통합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범주화되어진다. 주요 연구대상으로는 아동, 중고등학생의 청소년기가 가장 많으며(김영숙, 2002; 김운정·이창식, 2003; 김지형·장윤옥, 2001; 김혜경, 1997 외 다수), 대학생은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박경란·이영숙, 2001; 서병숙·김수현, 1999; 이영숙·박경란, 2002 외 다수)의 순이다. 전 연령층 또는 연령층간 노인이미지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 연구는 이선자(1989)가 대표적이며, 윤성혜(2000), 안옥희 외(2002), 이금룡(2004)등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TV 광고나 교과서, 동화, 인터넷 신문 등의 분석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노인이미지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권명숙, 2002; 김미혜, 2003; 김미혜·원영희, 1999; 오덕임, 2006; 이병관 외, 2003; 현자영, 2003).

노인이미지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연령층이 아동과 청소년에 치우쳐져 있으며, 노인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 분석으로 노인의 건강을 비롯한 경제, 성격 등의 측면별 이미지 분석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3.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주요변인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노인과의 대화정도, 노인문제 관심도, 노인관련 교육 여부, 거주지역, 가정교육, TV시청량, 조부모 또는 부모의 사회참여 정도와 친밀도 등이 연구되었다.

첫째, 성별은 여러 연구에서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미성과 경향에서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Tuckman과 Lorg, 1952; Kogan, 1961; 조명희 1987; 차용은, 1980; 최춘혁, 1992, 안옥희 외, 2002)는 연구가 있는 반면,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청년기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노인에게 더 긍정적이었으며, 원영희(2004)의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편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Troxler, 1971; 이은혜, 1995; 김연수, 1993, 서병숙·김수현, 1999)도 있어 노인이미지 요인으로서 성별의 유의미성과 영향의 방향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연령은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여러 연령층을 동시에 연구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이선자(1989)는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청년기에 이르러 점차 부정적이 되어 성인기와 중년기까지 지속된다고 하며, 신귀연(1995)의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아동보다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윤성혜(1990)는 청년·중년·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청년이 가장 부정적이며, 노년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옥희 외(2002)연구에서는 대학생보다 중학생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금룡(2004)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로 청소년까지는 긍정적인 것이 많으나 중년기가 되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 6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나타났다. 연령이 노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연구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과의 동거경험은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동거경험이 노인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의 연구(Ward 등, 1999; 김광숙, 1987; 조명희, 1974; 조성혜, 1990; 차용은, 1980; 최춘혁, 1992 등 다수)가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연구(이선자, 1989; 서병숙·김수현, 1999)이 있다. 또한 동거경험이 부정적 이미지를 낳는다는 연구(Steitz & Verner, 1987; 임인혜, 1987)와 무관하다는 연구(이은미, 1990)가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는 원영희(2004)의 연구와 Schwartz와 Simmons(2001)가 있고 이들 연구에서는 접촉의 빈도보다는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병숙·김수현(1999)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대화정도, 노인문제관심정도, 노인에 관한 수업을 받은 정도가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영희(2004)연구에 의하면 조(노)부모의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노인편견이 낮게 나타나며, 거주지역, 가정교육, 조부모-손자녀 관계, TV시청량 등이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관계의 방향은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자원봉사의 경험(Anderson & Hanley, 1999), 부모의 태도, 거주지역, 대중매체(이신숙·Sonia, 2005) 등의 변인이 밝혀지고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노인이미지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가구조사 자료이다. 동 조사는 전국규모 조사로 가구조사와 가구내 노인 심층조사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조사의 내용은 개별 가구원에 대한 성·연령·결혼상태에 대한 일반적 특성, 가구주 수입 및 취업형태, 세대주와 배우자의 부모세대와의 거주유형 및 동거특성을 비롯하여 노인과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 구성되어졌다. 가구조사의 응답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등 가구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완료된 총 가구수는 9,308가구이다. 이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응답자 중 연령이 20세 이상~64세 이하인 7,767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²⁾

2) 본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참고바람.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미지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노인의 건강과 정서적 상태, 지적·경제적 능력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기존연구에서 노인이미지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4가지 영역에 따른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전국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이미지의 경향성을 일반화하며, 노인의 네 영역별 이미지의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 이미지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노인의 영역별로 결정요인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기존연구에서는 성, 연령집단, 노인과의 동거경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노인이미지에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방향성과 유의미성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포함하여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변수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영향력과 영역별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노인의 이미지는 청·중·장년층의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결정요인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청·중·장년층의 연령대별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어지므로, 각 연령층별 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표 1>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는 노인의 건강특성, 정서적 특성, 지적능력,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이다. 영역별 이미지의 측정은 긍정적 형용사와 부정적 형용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긍정적 응답은 1, 부정적 응답은 0으로 코딩하였다. 조사에 활용된 형용사는 노인건강특성에 대한 이미지(정정하다 - 노쇠하다), 노인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미지(낙관적이다 - 비관적이다), 노인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현명하다 - 독단적이다), 노인경제력에 대한 이미지(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다 - 의존적이다)이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게 판명되었거나 유의미성이 판명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의미가 있는 변수로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 지역, 가구주여부, 유배우 여부이다. 연령은 20-39세, 40-49세, 50-64세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으로 구분, 월평균가구소득은 응답자의 중위소득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노인관련 변수는 노인동거여부, 부모 건강상태이다. 노인동거여부는 부모여부와 상관없이 가구내에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모건강상태는 동거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구주의 부모와 가구주 배우자부모의 건강상태로 모두 건강한 경우와 1명이상 건강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노후 준비 및 노후에 대한 가치관 관련 변수³⁾는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여부, 노후적합한 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한 가치관, 노후에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 유지방법, 노후희망형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으로 선정하였다.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여부는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는가 여부, 노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적합한 방법은 스스로 마련, 가족·자녀마련,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으로 구분하며, 노후에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 방법은

3) 노후준비와 노후에 대한 가치관을 노인 이미지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된 결과는 없는 실정이며, 타 분야에서도 미래에 대한 인식과 현재의 이미지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노인 연령차별의 특수성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연령차별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는 달리 차별하는 집단이 언젠가는 차별 당하는 집단이 된다는 것. 따라서 미래의 노후에 대한 가치관이 현 노인층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 연구자 임의로 선정함.

정서적 유대·비슷한 가치관, 근거리거주·빈번한 연락, 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으로 구분하였다. 노후희망형태는 취미활동, 자원봉사, 취업,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등의 기타로 구분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통계기법은 기술통계, chi-square를 통해 집단간 차이와 유의미성을 분석하였으며, 노인이미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로짓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되어진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이다.

<표 1> 분석에 포함된 변수

구분		변 수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 연령(20-39세, 40-49세, 50-64세) • 교육수준(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 월평균가구소득¹⁾(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지역(농촌, 도시) • 가구주여부 • 유배우여부
	노인동거경험 및 부모관련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동거여부 • 부모건강상태(건강함, 건강하지 못함)
	노후 준비 및 노후에대한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경제적준비여부 • 적합한 노후생활마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직접 마련, 자녀마련, 국가마련 • 노후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유대·비슷한 가치관, 근거리거주·빈번한 연락, 경제적교환·도구적교환 • 노후희망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활동, 자원봉사, 취업, 아무것도 하지 않음 •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
종속변수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이미지(노쇠하다, 정정하다) • 노인의 정서상태에 대한 이미지(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 • 노인의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독단적이다, 현명하다) • 노인의 경제능력에 대한 이미지(의존적이다, 독립적이다)

주: 1) 응답자의 월평균가구소득의 중위값(2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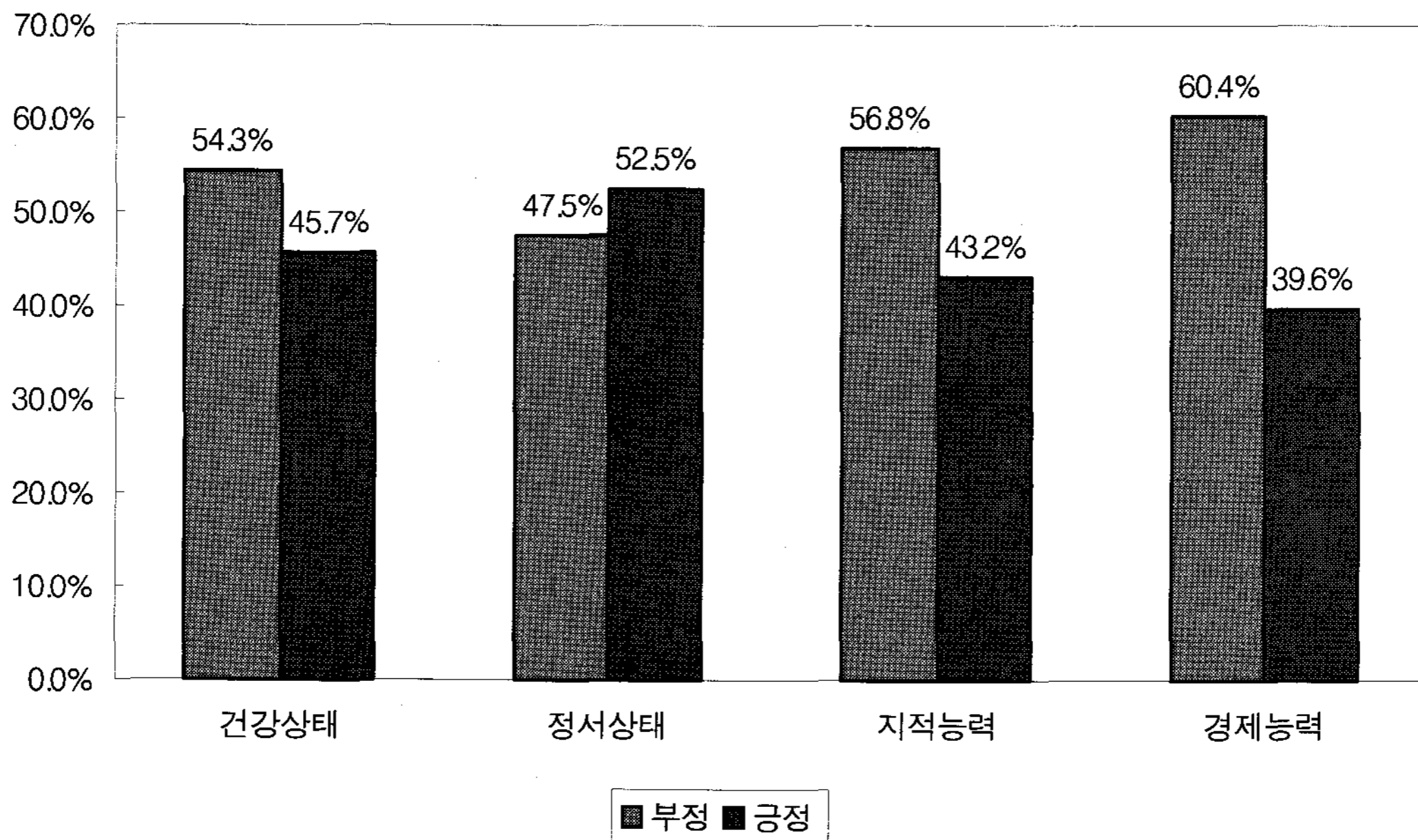
2) 노인의 영역별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는=0, 긍정적 이미지는 =1로 코딩함.

IV. 노인 이미지 및 노후에 대한 인식 실태

1. 노인 이미지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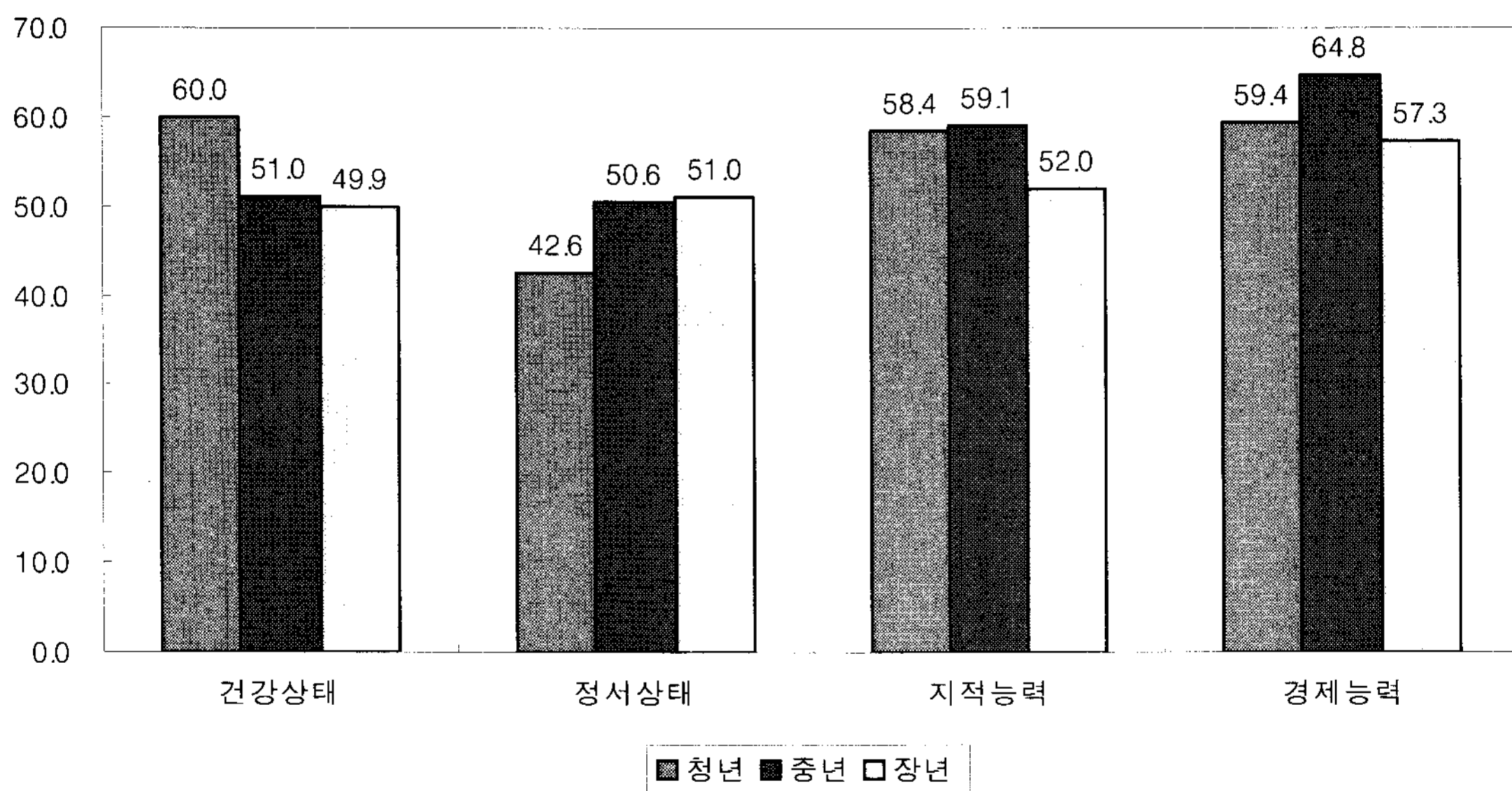
노인이미지는 부정적인가? 노인의 건강과 정서상태, 지적능력과 경제능력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정서상태를 제외하고는 부정적 이미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선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54.3%가 노인은 '노쇠하다'라고 응답했으며, 지적능력에서는 56.8%가 노인은 현명하기 보다는 '독단적이다'이라고 나타났다. 가장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영역은 경제능력으로, 노인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0.4%로 나타났다. 이는 현 노인층이 경제상태가 빈곤한 노인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정서상태에서는 노인은 비관적이기 보다는 낙관적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52.2%로 타 영역과 비교할 때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기존 연구에서 노인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우세하였으나, 본 연구분석에 의하면 노인의 4영역중 3개 영역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나타난 정서상태도 정도가 강하지 못하여 20~64세의 성인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 노인에 대한 이미지 실태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의 수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건강상태에 대한 이미지는 청년층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 청년의 60.0%는 노인이 노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노년층에 가까운 장년층의 경우 노인은 노쇠하다는 응답과 정정하다는 응답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서상태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장년층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나, 노인은 낙관적이기 보다는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건강상태에 대한 이미지와는 반대로 청년층은 노인은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42.6%로 낮게 나타났다.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는 청년과 중년이 비슷한 수준으로 부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장년은 노인의 지적능력에 있어 독단적이라기 보다는 현명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능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정도는 중년층이 64.8%로 나타났으며, 청년층과 장년층은 59.4%와 57.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과 영역에 따라 경향을 달리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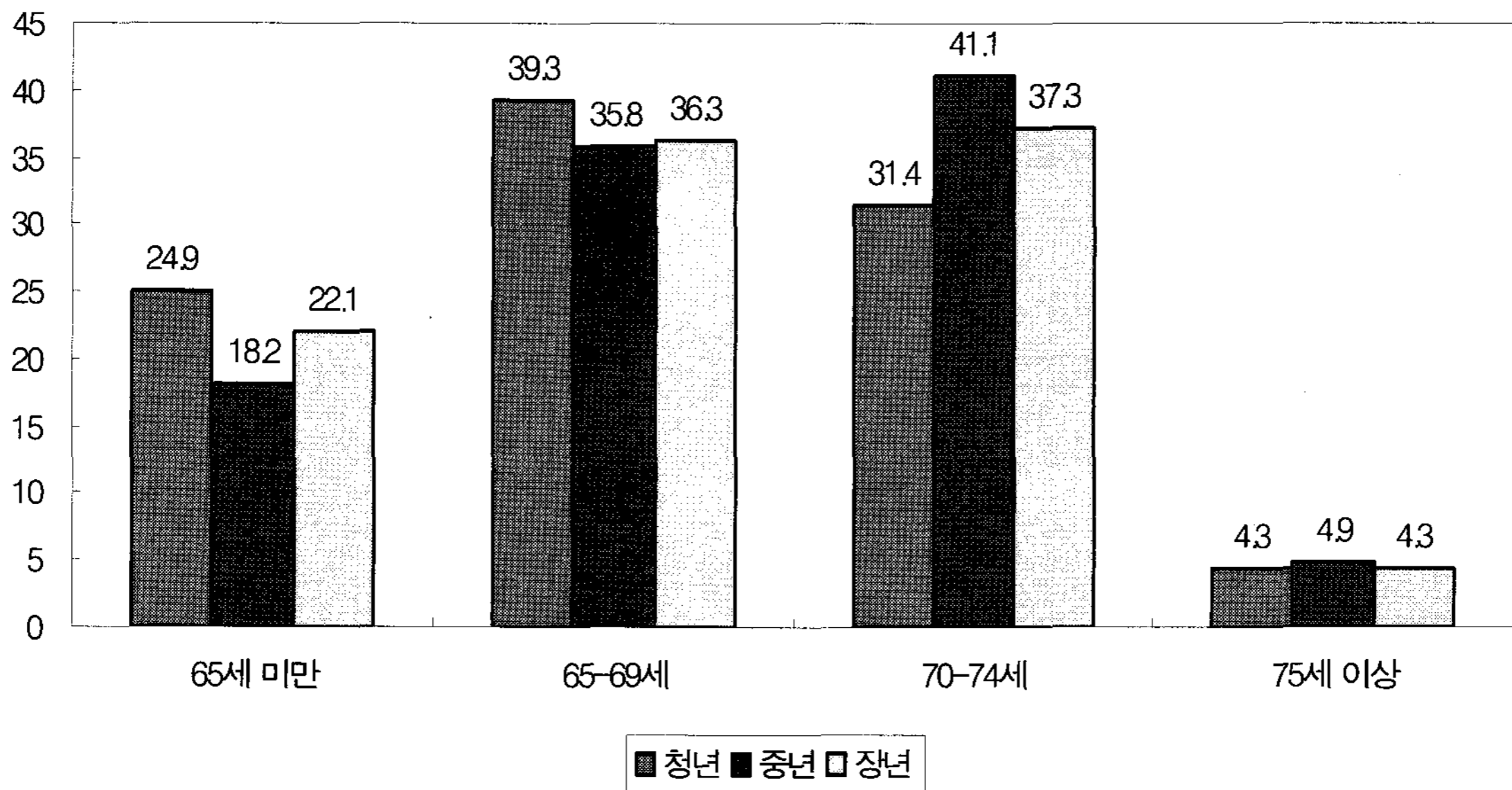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대별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수준



2. 노후에 대한 연령대별 가치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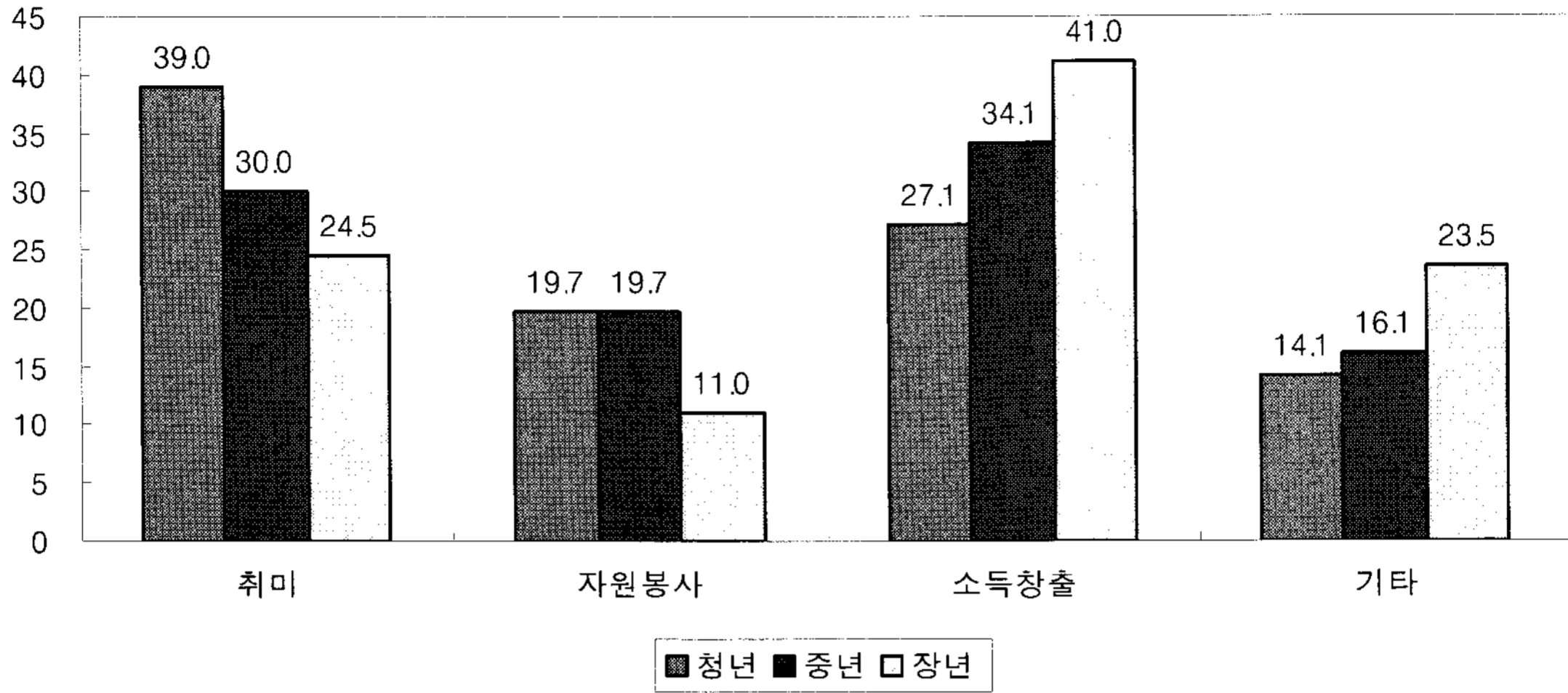
노인에 대한 법정 나이는 65세로 규정되어있지만, '노인'은 몇세부터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연령계층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청년층은 65-69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년층과 장년층의 경우는 70세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층의 경우 현재 노인이라는 단어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70세 이상 적용되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중장년층 뿐 아니라 청년층의 1/3이 70세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어, 현재 법정연령인 65세에 비해 더 늦게 노인이 시작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3> 연령대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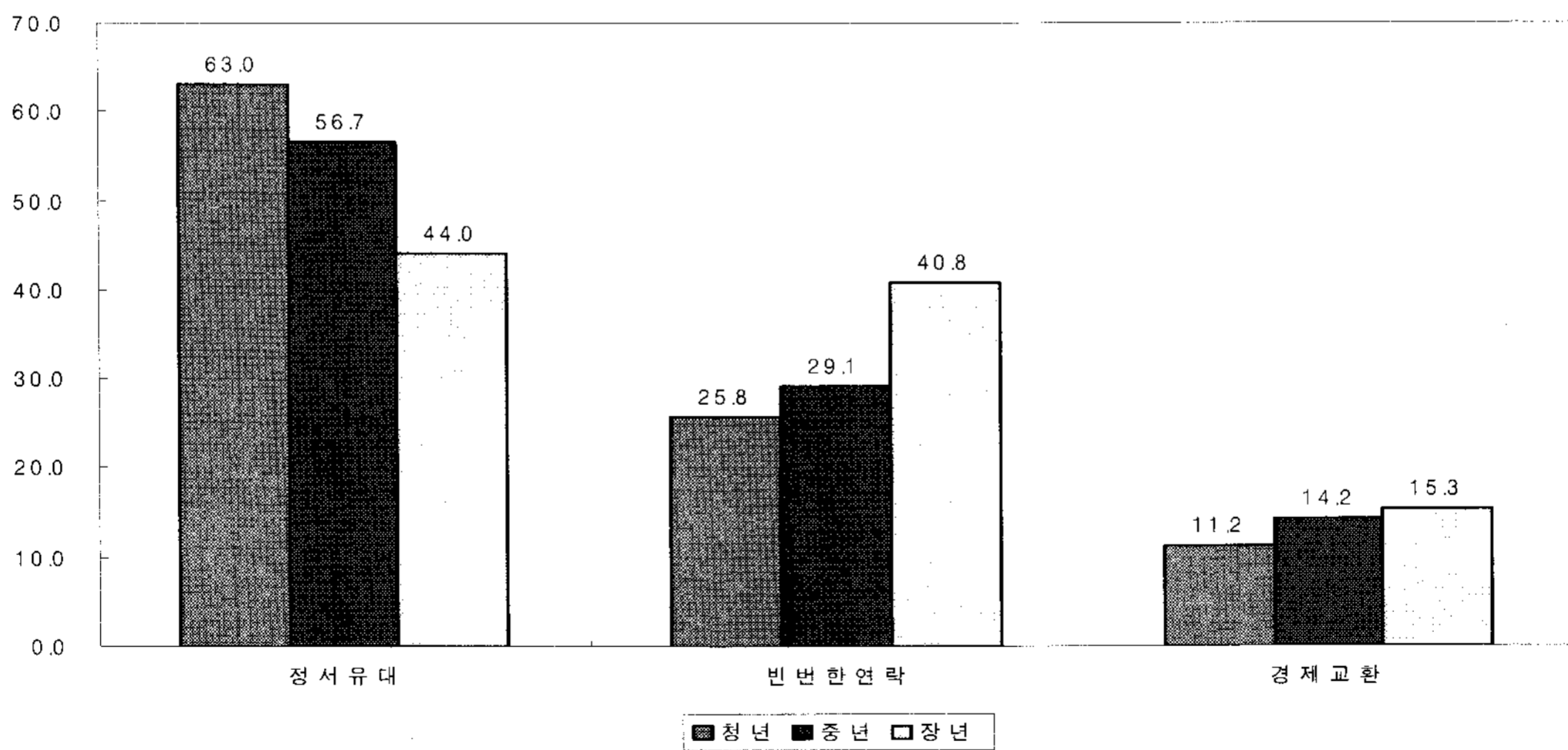
연령대별 미래의 노후희망형태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청년층의 경우는 취미활동이 39.0%이며, 소득창출과 자원봉사활동이 19.7%와 27.1%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경우는 30.0%가 취미활동이며, 소득창출이 34.1%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장년층의 경우 취미활동은 24.5%인 것에 비해, 소득창출이 41.0%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년층이 가까워 오면서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 현실적 대안으로서 소득창출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냈다. 장년층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등의 기타 의견이 높은 것에 비해 청년층과 중년층은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에도 취미활동, 자원봉사, 소득창출 등의 적극적 노후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 연령대별 노후희망형태



노후에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년층과 중년층은 정서적 유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빈번한 연락과 경제교환의 순이었다. 하지만 장년층의 경우는 빈번한 연락, 정서유대, 경제교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 연령층에 비해 경제교환의 중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대별 자녀-부모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며, 특히 부모세대를 부양해야 할 책임감이 높았던 장년층의 경우 경제교환의 중요성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림 5> 연령대별 노후에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요소



V. 노인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분석결과

1. 노인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노인이미지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과 정서특성, 지적능력과 경제력에 대한 각 영역별 결정요인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요인은 모든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일부 영역에서만 유의미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4가지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노인동거여부와 노후에 대한 가치관 변수로서 노후생활비마련방법,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 방법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건강상태와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장년층보다 청년층이 부정적이며, 정서상태에 대해서는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긍정적이며,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장년층에 비해 중년층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노인이미지에 대해 연령에 따라 부정적 또는 긍정적이라는 것과는 달리 연령의 노인이미지에 대한 영향은 노인의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노인동거여부는 전 영역에서 노인과 동거를 하는 것이 동거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동거가 노인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임인혜(1987)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노인과 동거경험이 유아기 또는 중·고등학생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핵가족문화가 확대되면서 노인과 동거는 노부모의 건강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가구유형으로 현재 노인과 동거하는 성인의 경우 노인부양부담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진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향후 적합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과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변인이다. 이는 노후에 대한 인식이 노인이미지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이 증명된 것이다. 노후생활비마련방법에서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집단에 비해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 집단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노인의 건강상태, 정서상태, 경제력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정서상태와 지적능력에서는 국가차원의 마련보다 가족·자녀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 집단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노후연금이 본격화되지 않아 국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본인 또는 가족차원의 사적인 방안이 더 지지적임을 나타낸 결과이다. 또한 이는 향후 젊은 계층의 사회적 노인부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노후에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방법이 노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전 영역에서 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에 비해 근거리 거주·빈번한 연락을 중시하는 집단이 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를 제외한 노인의 정서상태, 지적능력과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정서적유대·비슷한 가치관이 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을 중시한 집단 보다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와

비슷한 가치관, 근거리 거주와 빈번한 연락은 노인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와같은 결과는 현재 동거경험이 노인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경제적이거나 도구적 교환과 같이 의무와 책임이 배제된 정서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질 수 있다.

다음은 4가지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수준 변수는 노인의 건강상태, 지적능력, 경제력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이미지는 전문대학 이상 보다 중학교이하와 고등학교 집단이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긍정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지적능력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이상보다 고등학교 집단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 경제능력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이상보다는 중학교 이하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변수는 정서상태를 제외한 영역에서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이 부정적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원영희(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농촌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노인이 많은 점, 전통적인 효에 대한 인식이 높은 점 등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부모의 건강은 노인 정서상태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건강한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집단은 노인이 낙관적이기 보다는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건강상태에 대한 이미지 보다 정서상태에 대한 이미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노인 정서상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여부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정서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후준비를 한 집단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희망형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집단에 비해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취미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한 집단이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건강상태와 정서상태, 경제능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의 법정연령은 65세 이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 적극적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으로써 노인의 시작연령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이다.

기존연구에서 노인이미지에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성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서병숙·김수현(1999)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인의 건강·정서상태 및 지적·경제능력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분석 - 로짓회귀분석

변 수	건강상태에 대한	정서상태에 대한	지적능력에 대한	경제능력에 대한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b(S.E.)	b(S.E.)	b(S.E.)	b(S.E.)
성(기준=여성)	-0.06(0.09)	0.04(0.09)	0.06(0.09)	-0.03(0.09)
연령(기준=장년:50-64세)				
청년:20-39세	-0.17(0.07)*	0.25(0.07)***	-0.19(0.07)**	0.10(0.07)
중년:40-49세	0.05(0.06)	-0.03(0.07)	-0.20(0.07)**	-0.23(0.07)***
교육수준(기준=전문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0.46(0.08)***	-0.12(0.08)	-0.04(0.08)	0.28(0.08)**
고등학교	0.23(0.06)***	-0.04(0.06)	-0.19(0.06)**	0.12(0.06)
월가소득(기준= 200만원 이상)	-0.03(0.05)	0.02(0.05)	-0.03(0.05)	-0.03(0.06)***
지역(기준=농촌)	-0.23(0.07)***	-0.07(0.07)	-0.11(0.07)**	-0.41(0.07)***
가구주여부(기준=가구주)	0.06(0.10)	0.11(0.10)	0.27(0.10)	0.13(0.10)
유배우여부(기준=무배우)	0.01(0.08)	0.02(0.08)	-0.08(0.08)	0.12(0.08)
노인동거여부(기준=동거안함)	-0.17(0.07)*	-0.25(0.07)***	-0.23(0.07)**	-0.63(0.08)***
부모건강여부(기준=건강함)	-0.03(0.05)	-0.16(0.05)***	0.08(0.05)	0.09(0.05)
노후준비여부(기준=준비안함)	-0.17(0.06)**	-0.14(0.06)*	-0.01(0.06)	-0.11(0.06)
노후생활비마련방법(기준=국가)				
본인마련	0.19(0.05)***	0.18(0.05)***	0.07(0.05)	0.27(0.05)***
자녀·가족마련	0.09(0.09)	0.28(0.09)**	0.28(0.09)**	0.08(0.09)
원만한자녀와관계유지방법(기준=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정서적유대·비슷한가치관	0.09(0.07)	0.73(0.07)***	0.29(0.07)***	0.42(0.08)***
근거리거주·빈번한연락	0.25(0.08)**	0.47(0.08)***	0.26(0.08)***	0.50(0.08)***
노후희망형태(기준=아무것도하지않음)				
취미활동	0.15(0.07)*	0.04(0.07)	0.06(0.07)	0.13(0.07)
자원봉사	0.12(0.08)	0.07(0.08)	0.04(0.08)	0.05(0.08)
취업	0.11(0.07)	-0.05(0.07)	0.02(0.07)	0.11(0.07)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	0.18(0.03)***	0.09(0.03)***	0.02(0.03)	0.08(0.03)**
상수	-1.01(0.18)***	-0.59(0.18)***	-0.44(0.18)*	-1.15(0.19)***
-2Log Likelihood	10072.0***	10113.6***	10045.2***	9748.2***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는 0, 긍정적 이미지는 1로 코딩됨.

2. 연령대별 노인 이미지 결정요인 분석

가. 연령대별 노인건강특성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분석

노인건강특성에 대한 청·중·장년층의 이미지 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전 연령층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요인은 교육, 노후생활비마련방법,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 변수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전 연령층에서 전문대학 이상에 비해 중학교이하와 고등학교 집단이 노인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마련방법에서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집단에 비해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

<표 3> 연령대별 노인건강특성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변 수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20-39세)	(40-49세)	(50-64세)
	b(S.E.)	b(S.E.)	b(S.E.)
성(기준=여성)	0.02(0.13)	-0.23(0.19)	-0.14(0.18)
교육수준(기준=전문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0.47(0.18)**	0.64(0.13)***	0.30(0.16)*
고등학교	0.20(0.08)*	0.27(0.12)*	0.16(0.16)
월가구소득(기준= 200만원 이상)	-0.11(0.09)	-0.20(0.10)*	0.25(0.10)**
지역(기준=농촌)	-0.25(0.11)*	-0.14(0.12)	-0.34(0.11)**
가구주여부(기준=가구주)	-0.17(0.15)	0.24(0.21)	0.29(0.20)
유배우여부(기준=무배우)	-0.11(0.12)	0.17(0.18)	0.05(0.17)
노인동거여부(기준=동거안함)	-0.18(0.14)	-0.13(0.12)	-0.15(0.13)
부모건강여부(기준=건강함)	0.10(0.08)	-0.02(0.09)	-0.03(0.10)
노후준비여부(기준=준비안함)	-0.16(0.09)	-0.25(0.11)*	-0.10(0.10)
노후생활비마련방법(기준=국가)			
본인마련	0.16(0.08)*	0.21(0.09)*	0.22(0.09)**
자녀마련	0.01(0.13)	0.05(0.20)	0.22(0.17)
원만한자녀와관계유지방법(기준=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정서적유대·비슷한가치관	0.13(0.13)	0.05(0.13)	0.11(0.13)
근거리거주·빈번한연락	0.43(0.14)**	0.09(0.14)	0.22(0.13)
노후희망형태(기준=아무것도하지않음)			
취미활동	0.07(0.12)	0.04(0.13)	0.36(0.13)**
자원봉사	0.15(0.12)	-0.16(0.14)	0.31(0.16)*
취업	0.11(0.13)	-0.07(0.13)	0.23(0.12)*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	0.12(0.04)**	0.25(0.05)***	0.17(0.05)***
상수	-0.81(0.27)**	-1.19(0.34)***	-1.17(0.34)***
-2Log Likelihood	3956.0***	3130.2***	2936.1***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는 0, 긍정적 이미지는 1로 코딩됨.

집단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건강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 유의미성을 달리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월평균가구소득은 중년층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장년층에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청년과 장년층에서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여부는 중년층에서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건강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또한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 방법에 대한 변수는 청년층에서만 유의미성을 나타냈으며 경제적 교환에 비해 근거리 거주와 빈번한 연락을 중요시하게 제시한 집단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의 경우 노후희망형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보다는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 취업의 활동을 원하는 집단이 노인의 건강상태에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연령대별 노인 정서상태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노인 정서상태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의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노인의 정서상태에 대한 이미지는 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변수보다는 노후생활에 대한 가치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특히 노후생활비마련방법과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방법 변수가 청·중·장년층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타 영역과 유사하였다. 청년층은 노인과 동거할 경우와 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 노인의 정서상태가 비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에 생활비를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자녀·가족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후에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경제적 교환보다는 정서적 유대나 근거리 거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인의 정서상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중년층은 노후생활비 마련방법과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 방법에 따라, 노후희망형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변수에 따라 노인의 정서상태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를 보였다. 노후생활비 마련방법과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 방법에서는 청년층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후희망형태에서는 노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취업을 희망하는 집단에 비해 노인정서상태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장년층에서는 가구주가 비가구주에 비해,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서 국가보다는 본인 또는 자녀가족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경우, 노후에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경제적 교환보다는 정서적 유대와 근거리 거주를 중요시할 경우 노인의 정서상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표 4> 연령대별 노인 정서상태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변 수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20-39세) b(S.E.)	(40-49세) b(S.E.)	(50-64세) b(S.E.)
성(기준=여성)	0.10(0.13)	-0.11(0.19)	-0.14(0.18)
교육수준(기준=전문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0.10(0.19)	-0.00(0.13)	0.03(0.16)
고등학교	-0.15(0.08)	0.10(0.12)	0.14(0.16)
월가구소득(기준= 200만원 이상)	-0.12(0.08)	-0.02(0.10)	0.11(0.10)
지역(기준=농촌)	-0.16(0.12)	-0.14(0.12)	0.06(0.11)
가구주여부(기준=가구주)	0.05(0.15)	0.08(0.21)	0.49(0.20)*
유배우여부(기준=무배우)	-0.03(0.12)	-0.00(0.17)	0.30(0.17)
노인동거여부(기준=동거안함)	-0.46(0.13)***	-0.12(0.12)	-0.14(0.13)
부모건강여부(기준=건강함)	-0.18(0.08)*	-0.12(0.09)	-0.10(0.10)
노후준비여부(기준=준비안함)	-0.13(0.09)	-0.07(0.11)	-0.19(0.10)
노후생활비마련방법(기준=국가)			
본인마련	-0.08(0.08)	0.32(0.09)***	0.37(0.09)***
자녀마련	0.32(0.13)*	-0.04(0.20)	0.35(0.17)*
원만한자녀와관계유지방법(기준=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정서적유대·비슷한가치관	0.36(0.12)**	0.45(0.13)***	0.49(0.13)***
근거리거주·빈번한연락	0.45(0.13)***	0.43(0.14)**	0.52(0.14)***
노후희망형태(기준=아무것도하지않음)			
취미활동	0.07(0.12)	-0.14(0.13)	0.18(0.13)
자원봉사	0.02(0.13)	-0.05(0.14)	0.21(0.16)
취업	0.05(0.13)	-0.26(0.13)*	-0.01(0.12)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	0.02(0.04)	0.09(0.05)*	0.16(0.05)***
상수	0.26(0.27)	-0.06(0.34)	-1.72(0.35)***
-2Log Likelihood	4005.1***	3153.2***	2891.5***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는 0, 긍정적 이미지는 1로 코딩됨.

다. 연령대별 노인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노인 지적능력에 대한 청·중·장년층의 이미지 결정요인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청년층에서 노인지적능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교육수준, 노인동거여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지적능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보였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학 이상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노인의 지적능력에 대해 부정적이였다. 노인동거는 청년층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대별 노인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변 수	청년층 (20-39세)	중년층 (40-49세)	장년층 (50-64세)
	b(S.E.)	b(S.E.)	b(S.E.)
성(기준=여성)	0.329(0.13)*	-0.18(0.19)	-0.23(0.18)
교육수준(기준=전문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0.11(0.19)	0.12(0.13)	0.14(0.16)
고등학교	-0.34(0.08)***	0.06(0.12)	-0.04(0.16)
월가구소득(기준= 200만원 이상)	-0.11(0.09)	-0.04(0.10)	0.09(0.10)
지역(기준=농촌)	-0.12(0.12)	-0.11(0.12)	-0.12(0.11)
가구주여부(기준=가구주)	0.00(0.14)	0.60(0.21)**	0.57(0.20)**
유배우여부(기준=무배우)	-0.10(0.12)	0.10(0.17)	0.16(0.18)
노인동거여부(기준=동거안함)	-0.32(0.14)*	-0.10(0.13)	-0.26(0.13)*
부모건강여부(기준=건강함)	-0.00(0.08)	0.20(0.09)*	0.06(0.10)
노후준비여부(기준=준비안함)	-0.05(0.09)	-0.05(0.11)	-0.02(0.10)
노후생활비마련방법(기준=국가)			
본인마련	-0.09(0.08)	0.18(0.09)*	0.16(0.09)
자녀마련	0.16(0.13)	0.26(0.20)	0.47(0.17)**
원만한자녀와관계유지방법(기준=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정서적유대·비슷한가치관	0.02(0.12)	0.47(0.13)***	0.43(0.13)***
근거리거주·빈번한연락	0.18(0.14)	0.41(0.14)**	0.21(0.13)
노후희망형태(기준=아무것도하지않음)			
취미활동	-0.03(0.12)	0.08(0.13)	0.15(0.13)
자원봉사	0.15(0.13)	-0.13(0.15)	-0.02(0.16)
취업	0.04(0.13)	-0.12(0.13)	0.11(0.12)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	-0.08(0.04)*	0.05(0.05)	0.11(0.05)*
상수	0.18(0.27)	-1.34(0.35)***	-1.28(0.34)***
-2Log Likelihood	3981.3***	3073.7***	2926.0***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는 0, 긍정적 이미지는 1로 코딩됨.

중년층에서는 가구주여부, 부모건강여부, 노후생활비마련방법,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방법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비가구주에 비해, 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 노후생활비 마련에서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노후 원만한 자녀관계를 위해 정서적 유대와 근거리 거주를 응답한 경우 노인 지적능력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은 가구주여부, 노인동거여부, 노후생활비마련방법,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방법,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 변수가 노인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층과 유사한 결과이다.

라. 연령대별 노인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노인경제력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을 청·중·장년별로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우선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과 노인동거여부,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이, 노인과 동거할 경우 노인의 경제능력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노후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 유대와 근거리 거주를 중요시한 경우 노인의 경제능력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노인동거여부가 노인경제력에 주요한 영향변수인 것은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으며,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의존적일 가능성을 높은 실태를 반영한 결과로 예측된다.

<표 6> 연령대별 노인 경제력에 대한 이미지 결정요인

변 수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20-39세)	(40-49세)	(50-64세)
	b(S.E.)	b(S.E.)	b(S.E.)
성(기준=여성)	0.22(0.14)	-0.15(0.19)	-0.23(0.19)
교육수준(기준=전문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0.13(0.19)	0.02(0.14)	0.67(0.17)***
고등학교	0.08(0.08)	0.04(0.13)	0.29(0.17)
월가구소득(기준= 200만원 이상)	-0.16(0.09)*	0.05(0.11)	0.11(0.11)
지역(기준=농촌)	-0.37(0.11)***	-0.44(0.12)***	-0.41(0.11)***
가구주여부(기준=가구주)	0.22(0.15)	0.18(0.22)	0.56(0.21)**
유배우여부(기준=무배우)	0.20(0.12)	-0.28(0.18)	0.41(0.18)*
노인동거여부(기준=동거안함)	-0.75(0.15)***	-0.79(0.14)***	-0.41(0.13)**
부모건강여부(기준=건강함)	0.07(0.08)	-0.06(0.09)	0.18(0.10)
노후준비여부(기준=준비안함)	-0.12(0.10)	-0.04(0.12)	-0.15(0.11)
노후생활비마련방법(기준=국가)			
본인마련	0.12(0.08)	0.26(0.09)**	0.53(0.10)***
자녀마련	0.06(0.13)	0.07(0.21)	0.13(0.18)
원만한자녀와관계유지방법(기준=경제적 교환·도구적 교환)			
정서적유대·비슷한가치관	0.51(0.13)***	0.58(0.14)***	0.20(0.14)
근거리거주·빈번한연락	0.61(0.14)***	0.64(0.15)***	0.29(0.14)*
노후희망형태(기준=아무것도하지않음)			
취미활동	0.20(0.12)	0.10(0.14)	0.07(0.13)
자원봉사	0.13(0.13)	-0.05(0.15)	0.04(0.17)
취업	0.11(0.13)	0.10(0.14)	0.09(0.12)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	0.07(0.04)	0.14(0.05)**	0.03(0.05)
상수	-1.00(0.27)***	-1.13(0.36)**	-1.75(0.36)***
-2Log Likelihood	3939.4***	2919.5***	2817.8***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각 영역의 부정적 이미지는 0, 긍정적 이미지는 1로 코딩됨.

청년층에서는 월평균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노인의 경제력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중년층에서는 노후생활비 마련의 책임이 본인일수록,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의 경제력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장년층에서는 전문대학이상 학력자에 비해 중학교 이하 학력자, 비가구주에 비해 가구주일때, 유배우일때, 노후생활비 마련의 책임이 본인이라고 생각할 수록 노인의 경제능력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의 노인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 노인의 건강·정서상태와 지적·경제능력 영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노인 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지역과 노인동거여부,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인 노후생활비마련방법과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요소의 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변수 등이다. 본 연구에서 연령변수는 노인 이미지 결정요인으로서 건강상태와 지적능력에 대해서는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정서상태와 경제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이는 영역별로 방향을 달리한다는 중요한 발견이다. 또한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노인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20대 이상의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함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 또는 부모의 건강약화 등의 이유를 동거할 경우 노인 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났다고 예측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의미있는 새롭게 입증된 변수는 노후에 대한 인식이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노후에 생활비를 마련하는 적합한 방법에 대한 생각, 노후에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하는 노후희망형태, 노인이라고 인식되는 연령에 대한 인식은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변수에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노인이미지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정경희 외, 2006 미발간).

셋째, 노인 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변수는 영역별 뿐 아니라 연령계층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청년과 중년, 장년층별로 각 영역별로 노인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인건강상태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청년층에서는 노후에 원만한 자녀관계 유지방법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장년층에서는 노후희망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서상태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청년층은 노인동거여부와 부모의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반면, 중년층과 장년층에서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적능력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청년층에서는 성과 교육수준, 노인동거여부, 중장년층에서는 가구주여부와 노후생활비 마련방법과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방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능력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연령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년층에서는 학력, 가구주, 유배우 여부 등이 타

연령층에서 발견된 유의미한 변수에 추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노인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의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위에서 성공적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접하는 것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방법이다. 연구결과에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노인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과 노후에 원만한 자녀와의 관계유지의 방법에서 정서적 유대와 빈번한 연락의 중요성의 인식이 노인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성공적 노후의 3가지 요소로 제시된 건강유지, 신체적·정신적 기능유지, 지속적인 사회참여(Rowe & Kahn, 1998)의 달성을 위해서는 노년기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건강관리 및 기능유지 프로그램의 실시, 활기찬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취업 등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개발하며, 노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평생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동거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과 동거는 노인이미지에 부정적 이미지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노인 부양 부담을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함으로써 인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노후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년층은 노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장년층은 노인의 성격 측면에서의 노인은 비판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시일내에 맞이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화와 노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준비교육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청년보다 더 강인한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이 있는가하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노인의 다양성은 발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의 명칭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늙고 병들고 고집이 세고, 부양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이미지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안의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단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노인이미지 연구만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음으로 인해, 노인이미지를 측정하는 신뢰성 높은 척도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를 밝힌다.

참고문헌

- 강희설,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의 경험과 인식』,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고양곤, 「정년제와 노인차별」, 『사회복지』 157, 18-33, 2003
- 고양곤, 「현대사회의 노인차별: 노인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47-60, 2002
- 곽필선,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연구』, 전북대학 석사학위 논문, 1989
- 구자현, 『노인여성과 사회적 차별문제』,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여성문제연구소, 133-148, 1987
- 권명숙,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반영된 노인이미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 옥,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2003
- 김 옥,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97-118, , 2002
- 김광숙, 『청소년의 노인관계에 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김문영, 「Ageism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관한 고찰」, 『정신간호학회지』, 9(4), 515-523, 2000
- 김미혜,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이미지 분석: 오마이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3(1), 13-30, 2003
- 김미혜, 원영희, 「새로운 노인 이미지 정립을 위한 노인광고: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2), 193-214, 1999
- 김연수,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영숙, 「중고등학생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1(3), 75-89, 2002
- 김윤정·이창식,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노후 피부양관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3), 65-82, 2003
- 김윤정·정선아,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11, 2001
- 김정한, 『중고령자 고용안정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김지형·장윤옥,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17, 2001
- 김태현, 『노년학』, 서울:교문사, 1998
- 김현주, 『조부모와의 우대감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혜경,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1997
- 대한민국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2006
- 박경란, 이영숙,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21(2), 71-83, 2001
- 박경숙,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과 고연령층의 취업생활」, 『노동경제논집』 23, 241-263, 2000
- 박재영, 「기업의 노인고용조건 및 노인에 대한 인식이 고용여부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6
- 배현미, 「노인교육에 의한 중학생들의 노인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공주대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서병숙, 김수현,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1999
- 신귀연,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이미지」,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96
- 안옥희 외,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 『한국생활과학지』 11(4), 347-355, 2002
- 오덕임, 『동화 속에 나타난 노인의 이미지』, 한서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옥은진,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원영희 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2), 131-146, 2002
- 원영희,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 319-339, 2005
- 원영희,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87-206, 2004
- 윤성혜,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윤진·조성미, 「경산노화사실인지 척도의 구성연구」, 『한국노년학』 2, 5-15, 1982
- 이금룡,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모색」, 『노인복지연구』 26, 143-164, 2004
- 이금룡,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노년학』 26(1), 143-159, 2005
- 이미정,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병관 외, 「TV광고에 등장하는 노인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문화적 분석」, 『광고학 연구』, 14(2), 165-183, 2003
- 이선자, 「각 연령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9, 79-91, 1989
- 이선자, 『전 연령노인태도 연구 - 연령군별 노인태도에 영향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 분석』,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9
- 이시형 외,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부양의식」,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9
- 이신숙 & Sonia,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 및 태도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95-218, 2005

- 이영숙, 박경란, 「노년학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3), 29-41, 2002
- 이은미,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코메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인숙, 「농촌지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123-135, 2000
- 이정원, 「고용상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이희진,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과 고령자 고용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퇴직제도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임인혜,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7
- 임장순,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1971
- 정경희 외,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정경희 외, 「고령화수준에 대응하는 고령친화적 지역모델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발간
- 조명희,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분석」, 『지역환경』, 5, 73-87, 1987
- 조명희,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태도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4
- 조성혜, 「대학생 태도 분석에 따른 노인복지대책」,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조용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차용은,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연구: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전주대학논문집』, 1980
- 최정혜,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내 차별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94-111, 2002
- 최춘혁, 「노인과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연구;서울시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편재희, 「농촌 청소년이 지각하는 노인이미지」,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한동희, 「한국의 노인차별에 관한 연구: 공공영역에서의 노인차별」,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78-93, 2002
- 한정란,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1), 2000
- 한정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 13(1), 2000
- 현자영,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노인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3
- Aday, R. H., McDuffie, W., & Sime, C. R., Impact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on black adolescent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19(7), 663-674, 1993
- Anderson-Hanley, C. , Experiential Activities For Teaching Psychology Of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5, 449-456, 1999
- Baggett, S. , Attitudinal consequences of older volunteers in the public school setting. *Educational Gerontology*, 7, 21-33, 1981
- Bales, S. S., Eklund, S. J. & Siffin, C. f., Children's Perceptions of elders before and after

- a school-based intergenerational program. *Educational Gerontology*, 26, 677-689, 2000
- Barton, H., Effects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on the attitudes of emotionally disturbed youth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5(3), 623-640, 1999
- Beckett, J. O., Plant Closing: how older workers are affected, *Social Work*, 33.1986
- Brubaker, T. H., & Powers, E. A., The stereotype of "Old": A review and alternative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1-447, 1976
- Butler, R., *Ageism*,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1995
- Carstensen, L., Mason, S. E., & Caldwell, E. C.,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 intergenerational technique for change. *Educational Gerontology*, 8, 291-301., 1982
- Cohen, E. S., The Complex Nature of Ageism: what is it? who does it? who perceive it? *The Gerontologist*, 41(5), 576-577, 2001
- Davies, L., Attitudes toward old age and aging, as shown by humor, *The Gerontologist*, 17, 220-226. 1977
- Estreicher, S. & Harper, M. C. .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law*, West group, 2000
- Hawkins, M. J.,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71-280, 1996
- Hummert, M., Garstka, T. Shaner, J., & Strahm, S., Age and typicality of judgements of stereotypes of the elderly: Perceptions of elderly and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 217-226, 1999
- Kogan, N., Attitude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44-54, 1961
- Nuessel, F. H. The Language Of Ageism, *The Gerontologist*, 22(3), 273-275, 1982
- OECD,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번역본, 2005
- OECD, *Expanding opportunities*, 2005
- Palmore, E., Attitudes toward Aging as shown by humor, *The Gerontologist*, 3(3), 181-186, 1971
- Rosencranz, H. A. & McNevin, T. E., A Factor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9, 55-59. 1969
- Rowe, J., & Kahn, R.,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1998
- Schwartz, L., & Simmons, J. P., Contact qua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7, 127-137, 2001
- Seefeldt, C. R., Jantz, R. K., Galpur, A. & Serock, K.,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implic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 301-310, 1977
- Steitz, J. A. & Verner, B.S., What adolescents know about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13(5), 357-368, 1987

- Ward, C. R., Duquin, M. E., & Steetman, H.,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message on future caregivers: Attitude toward aging, the elderly and caring for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5(3), 35-46, 1999
- Troxler, A. J.,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1(34), 11-34, 1971
- Tuckman. J.& Lorge I., Attitudes toward Old worke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 149-153, 1952